

제 1 강 철학이란 무엇인가?

1. 철학의 어원 및 특성

① 어원: philos(사랑)+ sophos(지혜)

지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

logos를 통한 지적 훈련을 통해 지혜를 획득할 수 있다=지혜에 대한 사랑

플라톤은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철학자를 일종의 연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향연>에서 물잔에 연결된 실, 소년애(동성애) 등으로 표현됨.

I. Kant, "철학을 가르칠 수는 없고, 다만 철학함을 가르칠 수 있을 뿐이다"

** 귀에 걸면 귀걸이: 현학적 수사/퀴변이다?

- 아직 모르는 진리에 대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주장들

② 중요 철학자들의 발언

플라톤: 철학은 경이에서 시작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호기심에서 시작한다.

칸트: 운명이다.

“인간의 이성은 어떤 종류의 인식에 있어서는 특수한 운명을 지니고 있다. 즉 이성은 자신이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대답할 수도 없는 문제로 괴로워하는 운명이다. 거부할 수 없음을 문제가 이성 자체의 본성에 의해서 이성에 부과되어 있기 때문이요, 대답할 수 없음은 그 문제가 인간 이성의 모든 능력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 “인간이나 사물들이 오직 꿈에 불과한 것이라고 아직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철학적 재능이 없는 사람이다.”

니이체, “밤새도록 신음하지 않은 자와는 대화할 가치가 없다.”

헤겔,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석양이 진 후에야 날기 시작한다.”

맑스, “이제까지의 철학은 세계를 해석하는 데에 그쳤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 xi)”

③ 철학과 여타 학문과의 구별

- 철학은 경험과학이 아님. 사변과 논리력으로 세계, 인간, 사회에 대해 총체적으로 사유

- 철학은 종교, 단순한 가치관이나 세계관 또는 사이비 과학이거나 미신, 신비주의적인 세계 고찰이 아니다. cf) 수필류의 에세이, 개인의 신념, 미스터리, 심리학, 점성술, 사주관상, 풍수지리

B. 리셀, “철학은 과학과 신학 사이의 중간적인 것이다.”

④ 철학적 방법론과 대상

- 방법론: 사변(충족이유율, 기회원인설, 선험적 논리학, 존재양상론, 실존주의 등등)과 논리(형식 논리, 변증논리, 기호논리) - 명상이나 각성보다는 이성적 사유에 의존함

- 대상: 존재(세계) 자체, 인간, 사회

2. 철학의 시작과 쟁점

1) 서양 철학의 시작

- 탈레스 - 만물의 원질(arche)은 물이다.

- 왜 탈레스가 서양철학의 시작인가?

* 대답보다는 질문: 만물의 근원에 대해 물음.

* 변화에 대해 불변하는 것을 찾음: 현상-본질, 일과 다, 실체와 속성, 주어와 술어 등등의 철학적 개념쌍(주요 범주)들로 전개됨.

* mythos에서 logos로 이행: 신화적 설명(초자연적 설명)보다는 이성적(자연적) 설명에서 그 답을 추구함.

2) 서양철학의 전개와 주요 개념(사상)의 등장

* 아낙시만드로스(기원전 545년 경): 아페이론(무한정자) - 비신화적 초자연성에 의거하여 자연을 설명하고자 함. ‘초월’과 ‘내재’ 개념의 모태가 됨.

* 피타고라스(기원전 572경-500년) : 페라스(한정자/수) - 자연의 내적 원리가 수학적임을 제창. 이후 유클리드 기하학, 근대 자연관의 모태가 됨.

* 헤라클레이토스(기원전 470년경): 변화와 생성 그 자체를 진리라고 생각 “변화 그 자체만 빼고 만물은 변화한다.”, “정의는 투쟁이다.”, “전쟁은 모든 것의 아버지이며 군주이다.” “너희는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 파르메니데스(기원전 515년경-440년 경): 변화와 생성을 감각의 기만으로 생각하고 진정한 세계는 불변하는 단 하나의 세계라고 생각. 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다.”

‘다’에 대해 ‘일’을, ‘변화’에 대해 ‘불변’을 주장. 감각과 이성을 구분.

⇒ 존재(있음)의 근원(있게 함)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서 서양철학은 출발. 이를 자연철학이라고 지칭하며, 소크라테스에 이르러서야 서양철학은 인간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였다.

⇒ 一과 多, 불변과 변화(생성), 본질과 현상, 원인(이유)과 결과, 이성과 감정(감각/경험)의 구분을 시작

3) 나의 견해

① “철학은 인간성을 자연성과 일치시키려는 (처절한) 노력이다.”

인간성: 인간본성에 대한 일반적 이해, 인간 인식에 대한 반성적 고찰(인식론), 인간행위에 대한 반성적 고찰(윤리학, 사회철학, 기술철학), 인간의 감정에 대한 고찰(미학)

- 부수적으로 필요한 학문: 심리학, 인지과학, 사회학(정치학), 예술사

자연성: 존재(자연) 일반에 대한 고찰(존재론), 존재와 인간의 만남에 대한 고찰(상기한 개별분과 철학), 자연과학에 대한 반성적 고찰(자연철학 또는 과학철학)

- 부수적으로 필요한 학문: 물리학을 위시한 자연과학 일반, 과학사

② “절대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사변적 몸부림이다.”

공자의 이순(耳順), 헤겔의 절대정신(“역사란 자유의 신장사다”), 칸트의 미학과 윤리론, 맹자의 “도는 천리지 자연“ 베이컨, ”아는 것이 힘이다(Scientia est potentia)“

* 참고: 14세-입지(立志), 20세-弱冠, 30세-而立, 40세-不惑, 50세-知天命, 60세-耳順, 70세-從心所欲不踰矩

* 스토아 학파의 apatheia/에피쿠로스 학파의 ataraxia

3. 철학의 제 분야

1) 인식론(認識論, epistemologia, epistemology, theory of knowledge, Erkenntnislehre)

- 정의: 인식의 가능 원리를 반성적으로 탐구하는 철학의 분야/인식을 인식하게끔 해주는 토대를 탐구하는 분야/참된 인식의 조건을 밝히는 철학의 분야.

- 일반적으로 근대철학(데카르트)은 인식론 중심의 철학이라 일컬어진다.

- 1) 인식의 기원(경험론, 합리론, 비판론 등), 2) 인식의 대상 및 내용(관념론, 실재론), 3) 참된 인식[진리]의 의미(대응설, 정합설, 실용설 등), 4)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불가지론, 회의론, 진화론-변증론//유한론과 무한론) 등을 해명

2) 존재론(存在論, ontologia, ontology, ontologie)

(1) 형이상학(사변철학):

- 세계의 본성과 세계 속에서의 인간의 위치에 관한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철학의 한 분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에 대한 명칭에서 유래)

- 존재와 존재자를 그 자체로서 연구하는 학문

cf) 자연과학: 존재와 현존을 물리적`화학적`수학적 등등의 대상으로서 다루는 학문

(2) 형이상학의 구분

일반 형이상학: 존재론, 존재를 존재 그 자체로서 다루는 학문, 아리스토텔레스가 제1철학이라고 불렀던 분야

⇒ “존재로서의 존재와 존재의 고유한 본성 때문에 존재에 귀속하는 속성들을 탐구하는 학문”

특수 형이상학: 영혼론(인간 정신이나 마음의 문제를 다룸)

우주론(전체로서의 세계에 관한 문제: 세계는 시공상 시초가 있는가?, 부분과 전체의 문제, 인과의 계열에 관한 문제, 우연성과 필연성의 문제 등을 다룸)

신학: 신의 존재 유무에 관한 문제를 다룸

3) 가치론(價値論): 윤리학, 미학, 역사철학, 사회철학, 정치철학

- 가치의 본성과 타당성을 다루는 철학의 분야
- 윤리학: 선의 문제를 다룸. 실천적 행위의 가치
- 사회 및 정치철학: 정의(justice)와 권력(power)의 문제를 다룸
- 역사철학: 역사의 본성
- 미학: 미와 예술 또는 감성적인 것의 본성을 다룸.

4) 논리학(論理學)

- 타당한 추론의 과학/논증결과의 진위에는 상관하지 않고 오직 타당한 논증과정이 무엇이고, 그것의 규칙(또는 법칙)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분야. 자연과학의 수학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형식 논리: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정립된 연역논증을 지칭한다. 명제의 내용과 무관하게 그 형식에 의해서 참·거짓이 확정된다. 예) 삼단논법.

(2) 기호 논리: 형식 논리가 19세기 논리실증주의(러셀/프래게 등)의 등장으로 체계화된 것. 논리주의가 대표적이다.

*논리주의: 수학마저도 논리학의 기본 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양상논리(가능성/필연성 등의 타당성 여부를 따짐), 시제논리(과거와 현재, 미래의 타당성 여부) 등이 포함됨.

(3) 초월 논리: 칸트에 의해 제창된 논리. 내용의 논리학이라고 주장: 경험적 내용의 타당성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말함- 순수지성개념의 선험성에 근거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인식의 선험성을 주장하였다.

(4) 변증 논리: 소크라테스의 산파술, 플라톤의 변증술,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유전사상, 칸트의 가상의 논리학, 헤겔의 진리의 논리학,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등등

*** 초월논리와 변증논리는 인식론이자 존재론이므로 논리(학)의 명칭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기본학으로서의 논리학과는 구분되고, 인식론과 존재론에서 다루어야 함. ***